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0일 월요일 음 6월 28일 (5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C, 낮 최고기온은 31-32°C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동쪽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다. 당분간 해상 풍랑, 강풍에 주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30%
70%	성산	30%
30%	고산	30%
60%	서귀포	30%

해돋이 05:52 해진 19:26	달돋이 02:27 달진 17:42
물때 만조 08:14 21:42	간조 03:19 14:48
자외선지수 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26/32°C
모레	☀ 맑음	24/31°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월드뉴스

“공격 드론 도입” 日안보문서 개정 윤곽

내년 방위비 10조엔 가능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8일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보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다.

전날 방위성이 공개한 내용은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도입한다는 방침이 핵심으로 꼽힌다.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량에서



고이조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담겼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방위비가 “최종적으로 10조엔(89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백록담



김 성 훈

편집부국장

요즘 제주지역 언론매체의 단골 이슈는 제주와 청다오간 해상항로다. 요지는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선사가 손해를 볼 경우 제주도가 이를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운행체계(BRT)도 주요 메뉴다.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지만 정작 차량 운전자는 물론 버스 이용자 등이 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확대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특별기고



고 종 갑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보통신팀장

많은 사람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뒤부터 구조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생명 구조는 119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신고자의 목소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구급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곳이 바로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이다.

응급상황에서 1분 1초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정지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 이뤄지는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례는 119종합상황실의 역할과 초

민선 9기, 공공사업 ‘치적’을 경계하라

두 사업 모두 전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력 사업이다. 그러나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은 이 둘 모두에 부정적인 시선을 쏟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과 그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도지사들마다 추진하려 했던 트램 사업도 관심거리다. 최근 제주항에서 공항과 제주시 노형동으로 이어지는 11.7km 구간이 정부 계획에 포함됐다. 위성곤 지사는 앞선 두 사업과 달리 트램에 대해선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신중론의 핵심은 역시나 4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관건이다. 하고싶다고 해서 무작정 추진할 수 없는 대형사업이다.

예산에 동반하는 행정의 사업은 ‘실전’이다. 결과에 따라 민심이 움직인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치며 명분을 쌓고 시범운영을 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수많은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고 생뚱맞은 공직자들의 노력도 폄하되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공사업은 미래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완벽한 준비가 동반돼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제2공항이 미래 수요예측에서 빛나간 1000만명의 차이는 정상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제주~청다오 항로의 경우 위 지사는 준비 부족을 꼬집고 있지만 취지엔 공감한다. 제주산품이 수출은 물론 육지로 옮겨지는데도 만만찮은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BRT 사업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전임 도정이 성급히 추진한 결과일 뿐 향후 제주 대중교통의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트램사업의 경우도 논란 소지가 적지 않은 대형 사업이다.

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한

다면 실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 공직자들이다. 결과가 실패하면 그 사업에 관여했던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된다. “왜 하필 그때 그 부서에 있어서... , 가만히 있을 걸...” 자조할 수밖에 없을테다.

얼마 전 제주~청다오 항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양측이 새로운 협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주도와 선사, 그리고 중국 청다오가 모두 ‘윈 윈’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민선 9기 한 달 남짓 됐다. 많은 것을 빨리 하고 싶은 데다. 밀어붙여 한다면 전제가 따라야 한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또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더불어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특히 공무원들 욕망이 커져야 하는 ‘치적’ 욕심은 금물이다.

신고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 구조, 119종합상황실

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평화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60대 남성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제주안전체험관의 전문 구급대원을 긴급 투입했다. 전담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어 도착한 구급대와 연계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해진 출동 체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자원을 선택한 탄력적인 대응이었다. 한라산 관음사 코스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구조 역시 대표적인 사례다. 산악지역은 지형 특성상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연결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했다. 신고자는 침착하게 가슴 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했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는 자발순환(自發循環)을 회복할 수 있었다. 신고자의 용기와 119종합상황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지도가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것이다.

이처럼 119종합상황실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거나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곳이 아니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근무하며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출동 중인 구급대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생명 구조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119 신고 시에는 환자의 정확한 위치와 의식·호흡 상태, 주요 증상을 침착하게 알려주고, 상황관리요원의 질문과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상통화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구조로 이어진다.

특히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상황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몇 분의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며, 그 시간을 함께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신고자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의 시간은 결코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신고자의 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를 이어가고 있다.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 후에는 상황관리요원의 질문과 안내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119 신고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 구조의 과정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할 때, 제주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고 든든해질 것이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

↑ 중앙로

제일사

NAVER 제일사 검색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 010-9086-8965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